

한국과 필리핀의 반미·친미 운동 비교 연구: 안보환경의 변화와 동맹관계의 불평등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유석춘* · 김인수**

I. 머리말: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미국¹⁾

한국과 필리핀은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두 나라가 1980년대 후반 거의 동시에 민주화를 이룩한 사실일 것이다. 필리핀은 1965년부터 계속된 마르코스 권위주의 정권을 1986년 2월 25일 이른바 ‘피플 파워(People’s Power)’를 통해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던 권위주의 통치를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미국의 대외정책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필리핀

*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 육군사관학교 사회학 전임강사.

1) 이 부분은 유석춘의 기고문 “한국과 필리핀의 미군”(조선일보 02/08/05)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과 한국이 각각 스페인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로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필리핀의 경우를 보자. 19세기 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를 두고 갈등하던 미국은 급기야 스페인과 전면전에 돌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던 필리핀 민족주의 세력은 미국과 연대해 투쟁했다. 마침내 1898년 미국은 필리핀에서 독립군의 도움으로 스페인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필리핀을 즉각 독립시키지 않았다. 대신 같은 해 파리조약을 통해 미국은 필리핀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필리핀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였다. 결국 미국은 193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필리핀에 자치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1941년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외치며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일본에 의해 필리핀은 또다시 자치국가로서의 역할이 부정되었다. 마침내 1945년 2차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1946년이 되어서야 필리핀은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도 필리핀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선 식민지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주의 세력은 미국을 친근한 우방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론 한국도 1945년 2차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곧바로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3년간의 미(美)군정을 거친 194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국은 독립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나마 분단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벌어진 전쟁에서 남한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라를 지키지 못할 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리면서 1953년 어렵사리 휴전을 하고 근근이 독립국가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두 나라는 미국과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엇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어 왔다. 우선 두 나라 모두 자국의 안보에서 차지하는 미군의 역할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공통점

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햇볕정책’이라는 최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존재 없이는 군사적 안보를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국내의 반군 테러조직을 자체적으로 제압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면서 급기야는 1992년 헌법으로 떠나게 했던 미군을 2002년 초 다시 불러들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86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는 양국에서 지금까지 보아 온 미국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재평가의 핵심적인 쟁점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미군의 법적 지위를 필요 이상으로 유리하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한 안전의 보장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한국과 필리핀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반미(혹은 친미)의 움직임을 안보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동맹관계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집합행동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글이다.

II. 민주화와 군사동맹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2001년의 9·11 이후 미국은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라크와 북한,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통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킨 데 이어 2003년 12월에는 이란으로부터 핵사찰 수용 선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에 산재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관련 국가의 내부적 반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²⁾ 최근 한국에서 확산되고

2) 독일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부시 대통령님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답했으며, 부시와 후세인 가운데 누가 더 위

있는 반미 움직임 역시 9·11 이후 새로운 미국의 안보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이후로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들은 수없이 반복되어 발생해 왔다. 그 중에는 2002년의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건도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항의가 ‘촛불시위’와 같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간 적은 없었다.³⁾

반면 필리핀에서는 91년 미군기지 철수 이후 10년 만에 미군이 필리핀 국민들의 84%의 지지를 받으며 10억 불의 원조와 함께 돌아왔다(Mangahas, 2002). 이에 따라 2002년에는 필리핀에서 아부 사야프(Abu Sayaaf)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세력에 대해 ‘칼라얀-아길라 2002(Kalayaan- Aguila 2002)’로 불리는 미·필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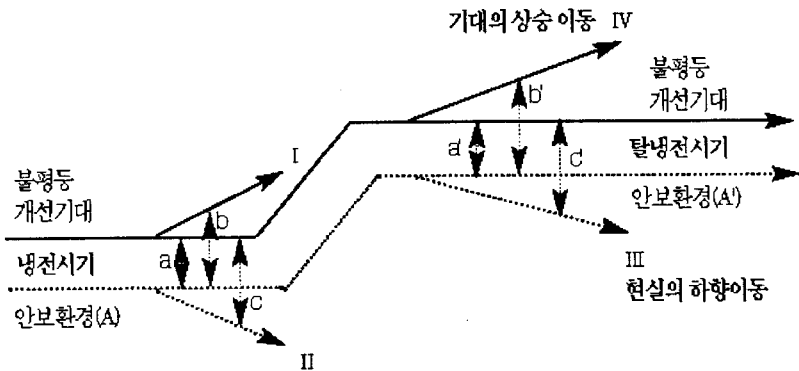
이 글의 논의는 한국과 필리핀의 대미관계가 기본적으로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동맹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독자적인 방위력의 결여 또는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위협세력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 동맹체 내에서 방위력의 자립도가 약한 국가는 상호성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권태영·정춘일, 1998). 그러나 방위능력이 향상되거나 국제 질서의 변화로 안보 위협의 약화되면 불평등한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동맹의 상호성을 회복하려는 집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⁴⁾

힘 하느냐는 설문에 38%가 부시 대통령을, 37%가 후세인을 대통령을 지목했다(KBS internet news 03/02/15).

- 3) 여중생 사망사건과 유사한 주한미군 관련 사건에 관해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http://usacrime.or.kr>)의 『미군범죄백서』 참조
- 4) 게취웬더(Geschwender 1968)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과거보다 개선되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의 향상을 기대하게 되고,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과거보다 악화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의 악화를 두려워하여 집합행동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

불평등한 동맹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와 불평등을 강요하는 안보환경과의 상대적 간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시간의 추이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그림 1>과 같은 분석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즉 안보환경이 (A)에서 (A')로 개선되면 동맹관계의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의 기대 역시 (B)에서 (B')로 상승한다. 만약 이 상황에서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대가 불평등을 인내할 수 있는 수준(a)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b) 동맹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집합행위가 발생한다. 다른 한편 이 상황에서 다시 안보환경의 악화가 진행된다면(c) 불평등 개선에 대한 요구보다는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는 집합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 안보환경의 변화와 동맹관계의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대



I: 냉전시기 필리핀; II: 냉전시기 한국; III: 탈냉전시기 필리핀; IV: 탈냉전시기 한국

다. 거어(Gurr 1970: 24) 역시 가치능력의 변화 없이 가치기대가 상승하거나, 가치기대의 변화 없이 가치능력이 감소할 경우 형성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집합행동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의 틀은 집합행동의 원인을 상승 이동하는 기대와 하향 이동하는 현실 간의 괴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김영정, 1988).

냉전시기 한국과 필리핀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주둔에 대한 두 사회의 반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는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반면,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경험하지 않은 필리핀에서는 I 과 같이 미국과의 불평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졌던 반면, 북한과의 대치상태로 안보 위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한국에서는 II 와 같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안보환경이 변화하게 되자 한국과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는 안보지원 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이와 같은 기대의 변화에는 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민주화라는 고리가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9·11 이후 반테러 공조를 이유로 미국이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개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리핀에서의 군사 주둔을 시도하면서 양국에서의 대미관계 양상은 다시 한 번 변화하게 된다. 이전 시기에 비해서 남북관계가 확연히 개선된 한국에서는 IV 와 같이 미국과의 불평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반미운동이 확대된 반면, III 과 같이 미군기지 철수 이후 내·외부적인 안보 위협으로 안보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필리핀에서는 미국과의 정책 공조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반미운동은 미국의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하여 ‘주한미군 철수설’ 혹은 ‘한미동맹 위기론’ 등으로 이어지며 급기야는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반면에 필리핀은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91년 이후 축소된 군사지원을 재개시키는 등 실익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미국에게 안보상의 많

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정책적 선택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조건적인 반미보다는 실용적인 반미가 분명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III. 필리핀의 반미와 한국의 친미: 냉전시대

1. 필리핀의 미군기지 철수 운동

필리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협력관계는 1898년 미·서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이 필리핀 혁명지도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시작되었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필리핀은 미국에게 협력하여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1898년 12월 파리 조약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양도받으면서 독립의 기대는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1899년 2월부터 1902년 3월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약 20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희생되었다(Ileto, 1979).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된 것은 일본의 필리핀 점령 때문이었다. 진주만 공격과 함께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하자 미국 내에서는 동남·동북아시아에서 육군 및 공군전략을 수행하는 미군의 중요 보급로를 확보하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군전략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리핀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자국 방위를 위해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필리핀 역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 결과 양국은 1947년 3월 군사기지협정을 체결하였다.⁵⁾

5) 군사기지협정의 체결은 1933년 최초의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국가의 독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2차대전 후 독립한 필리핀은 외부로부터의

그러나 필리핀의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과 달리 필리핀 국민들이 인식하는 안보 현실에서 미군의 역할은 미미한 것이었다. 필리핀은 외부의 공산 세력과 직접적인 대치상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은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특별한 고마움을 느낄까닭이 없었다. 미군은 다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다고 여겨질 뿐이었다. 또한 필리핀의 미군은 내부의 공산주의 세력을 비롯한 각종 반정부단체들의 반란을 저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이명철 · 김창수, 2002).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치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된 미국과의 군사기지협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필리핀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군사기지협정은 <표 1>와 같이 불평등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이는 당시 필리핀 사회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던 반미정서로 인하여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이루어졌다(이주천, 1990).

<표 1> 필리핀 군사기지협정 협상

시기	협상 내용
1953-1956	미군의 기지 소유권 주장 포기
1956-1976	기지협정 유효기간 개정: 무상임대를 1966년 9월 16일부터 1991년 9월 16일까지로 바꿈
1976-1979	기지사용료 받기 시작, 향후 5년간 필리핀에게 5억 불 지원
1979-1983	기지 공동사용, 향후 5년간 필리핀에게 9억 불 지원

출처: 송영선, 1987: 268.

공격에 대하여 미국의 자동적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보장체제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미국이 제공하는 해·공군기지를 통해 대외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군사기지협정과 함께 체결된 군사원조 협정을 통해 필리핀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권오신, 1992: 161-63).

필리핀의 반미운동은 마르코스의 독재와 함께 더욱 심화되었다. 필리핀 대중은 공산주의 단체들이 주도하는 “반미-반마르코스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하였다(조정남, 1979). 이러한 좌파의 세력 확대는 필리핀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온건 개혁세력의 마르코스 체제에 대한 도전 운동도 가속화시켰다. 또한 마르코스 체제에 대한 도전은 곧 바로 미국의 지배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다.⁶⁾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체제유지의 최후 보루였던 군이 내부적으로 분열되면서 마르코스 정권은 “민중의 힘”에 의해 붕괴되었다(서경교, 1994). 이에 따라 민중의 지지로 새로이 출범한 아끼노 정부와 필리핀 상원은 1991년 수빅만 기지 사용연장 안을 거부하였고, 1992년 미군은 수빅만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였다.

2. 한국의 미군 철수 반대 운동

1945년 일본군 무장해체를 위해 한국에 진주했던 미군은 1949년 6월 29일 5백 명의 군사 고문단만을 남겨둔 채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안보에 있어서 미국이 대소 봉쇄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한국은 핵심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미군의 철수는 3년여의 기간 동안 약 450만 명의 사상자를 낸 한

6) 미국은 마르코스가 주도한 쿠데타를 지지했으며, 1950년에서 1986년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제공된 군사원조 중 3/4가 마르코스 독재기간(1972-1986)에 이루어졌다(Ferrer, 1992).

7) 1947년 9월 25일 미합참본부는 마셜 미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합참(合參)의 전략적 견해를 제출했다. 여기서의 첫째,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고, 둘째,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의 공군력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으며, 셋째, 한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국의 국익에 절실히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소련이 남한을 자기 기지화하여 일본을 점령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해도 다른 극동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송영선, 1987).

국전쟁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중 연합군의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 없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억제 기능을 주한미군이 담당하는 구도를 요구하였다(육군사관학교, 1994).

이에 따라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교환하였던 1954년 11월 이전에 한국에 주둔하던 4개 사단 중 2개 사단을 철수시켰다. 한반도에 남겨진 2개 사단 7만 명 수준의 미군은 한국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전력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여전히 일본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한국은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미군을 붙들어 두고자 했다.⁸⁾

〈표 2〉 냉전시기 미국의 한국 및 필리핀에 대한 안보지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MAP	한국	162	169	253	138	137	293	1546	149	94	83	58	1	.5	11	122	100
	필리핀	22	26	21	17	16	15	13	16	15	20	20	16	18	16	25	25
MASF	한국	37	100	110	295	182	146	135	150	-	-	-	-	-	-	-	-
	필리핀	2	3	2	2	1	-	-	-	-	-	-	-	-	-	-	-
FMS	한국	-	-	-	-	-	-	-	-	-	-	260	152	275	225	129	162
Loans	필리핀	-	-	-	-	-	-	-	-	-	-	17	20	19	15	50	50

8)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국군의 전력이 증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 그는 아시아에서 자유중국, 필리핀, 월남 등의 국가들과 반공전선을 구축하는 안보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1954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정부에 대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는 결국 미국정부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이 대통령의 목적은 아시아에서 반공전선을 구축하여 미국의 전략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의도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그대로 답습되어 결국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었다(이민룡 2003: 393).

출처: 송영선, 1987: 273274.

- 1) MAP(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군사원조계획(법률에 의하여 제공되는 무상군사원조).
- 2) MASF(Military Assistance Service Fund): 군사원조자금(미국의 대외원조 예산과는 별도로 베트남 참전 국가들만 지원하는 군사원조기금으로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시행).
- 3) FMS(Foreign Military Sales) Loans: 해외군사판매차관(우방의 무기도입을 위해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연방은행이 제공하는 차관으로 한국에는 1975년부터 도입되었으나 1980년대 초부터 차관원리금의 상환규모가 신규차관을 능가하면서 1986년 종결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결여된 상황에서 한국 최고 정책결정자들에게는 미국의 안보보장을 확약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게 월남전 전투병력 파병의지를 먼저 표명하였으며, 그 대가로 방위조약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은 65년 2차 파병 협상 이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서는 양국이 사전에 협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미국 측은 이를 거부하는 대신 파병부대의 장비 보충, 한국군 부대의 인가병력 증가, 군원 이관 중지 등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였으며, 이는 <표 2>에서와 같이 군사원조자금(MASF)의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자, 1·21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Pueblo)호 납치사건 등으로 안보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한국에서는 국회 결의 및 내각 총사퇴론까지 등장하며 미군의 감축에 반대했다. 1970년부터 미국이 철군을 시작하자 한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의 전투 병력에 대한 철군을 지연시키는 등 막후 협상을 벌였다.⁹⁾ 1970년 12월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베트

9) 1960년대 말 미국은 장기전화 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내외 반발과 막대한 전비 지출에 따른 인플레이션, 달러화의 약세 등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1971년 6월까지 아시아에서 총 4만 2천 명의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하였다. 그 결과 주월미군과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한국에서도 1971년에 미 제7사단이 철수하였다(유재갑, 2003).

남의 한국군을 철수시켜 주한미군을 대체하겠다는 주장을 하여 72년 미국 의회로부터 15억 4천 6백만 달러 달하는 막대한 무상군사원조(MAP)를 확보할 수 있었다.

냉전시기 한국이 필리핀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표 2>에 정리되어 있듯이 무상군사원조(MAP)는 물론이고 해외군사 판매차관(FMS Loans)과 베트남 참전국을 지원하는 군사원조자금(MASF) 등 미국의 대외군사지원 항목에서 필리핀보다 월등한 지원을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월남전 종전과 함께 줄어들던 미국의 군사원조는 1977년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美) 지상군 철수계획에 따라 50만 달러 규모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그러나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후 신 냉전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한국은 “이제 한국군은 소련 세력을 저지하는 데까지 그 힘을 사용할 것이다”(나틸러스연구소편, 1989)라고 선언하는 등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대한(對韓) 군사원조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IV. 필리핀의 친미와 한국의 반미: 탈냉전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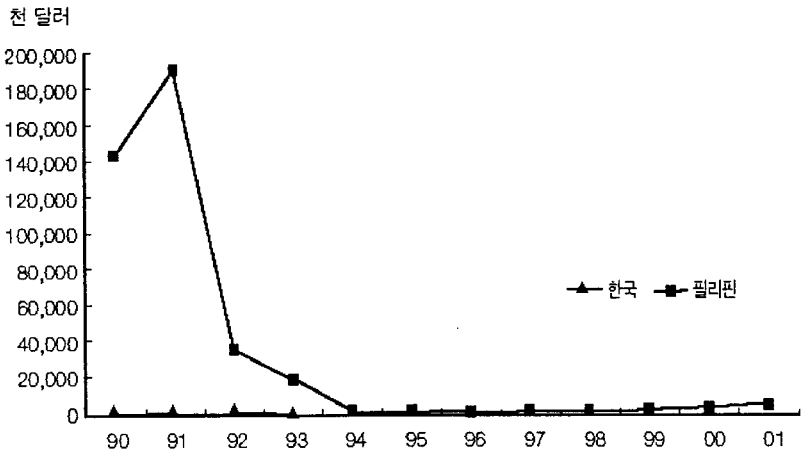
1. 대테러 전쟁과 필리핀의 변화

냉전시기 미국은 전 지구적으로 미 영토를 방어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소련을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 한국 및 동남아시아의 기지에 주둔군을 배치하여 우방국 및 동맹국을 보호하고자 하였다(국방부, 1995). 필리핀의 수빅과 클라크 군사기지는 제7함대 및 여타 미군 전력의 활동범위를 걸프만에서부터 인도양과 태평양은 물론이고 일본 열도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었다. 그

러나 1989년 소련과 동구의 해체로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기존의 동맹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일반적으로 국가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공동의 적이 명확히 인식될 경우 동맹의 결속력은 높아지지만, 적의 위협이 재평가되고 동맹국들이 개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동맹의 결속력은 낮아진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1년 클라크 공군기지, 1992년 수빅만 해군기지의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필리핀에서 지속되었던 93년간의 미군 주둔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와 함께 1980년대 말 약 1억 불 규모로 필리핀 전체 방위비의 14%에 달하던 미국의 군사원조도 <그림 2>에서와 같이 점차 중단되었다(CBO 1997).

<그림 2> 미국의 대한(對韓) 및 대필리핀 군사원조 (1990-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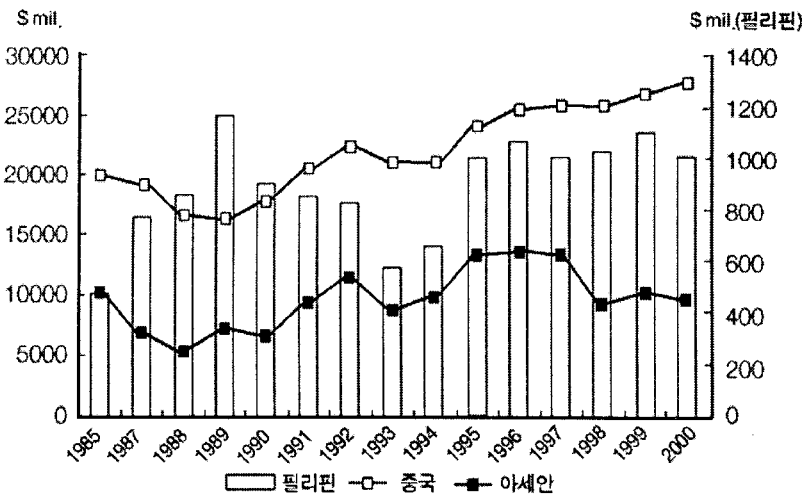


출처: U.S. Security Assistance Database, <http://www.fas.org>.

그러나 90년대 말 내부적으로 테러와 빈곤이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대외적으로도 1998년 중국이 남사군도에 해군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안보위협이 고조되자, 필리핀은 대미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다

시 자각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1989년 의회가 승인한 년-워너(Nunn-Warner) 수정안에 의해 필리핀 철수 외에도 태평양 지역의 전력 감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력 감축은 역설적으로 지역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는 이 지역 국가들이 지역 내의 인접 적대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역내 강대국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그림 3>에서와 같이 1990년대 초반 아세안(ASEAN) 국가들의 급격한 군사비 지출로 이어졌다. 특히 1995년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남사군도의 칼라얀 암초에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충돌이 벌어지자 미국의 안보 우산이 제거된 필리핀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¹⁰⁾

<그림 3> ASEAN 국가들과 중국의 군사비 지출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1984 - 2001.

10) 영해에 대한 방어를 미 7함대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필리핀군은 중국과의 충돌 당시 30여 척의 구식 초계정과 낡은 F-5 전투기 외에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방호할 자산을 갖고 있지 못했다(RIPS 1997: 180).

이는 필리핀이 군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¹¹⁾ 이러한 협력은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세안을 지원하는 한, 미국에 대한 이들의 적대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59%가 남사군도에서 중국과의 분쟁 발생 시 미국이 필리핀을 지원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필리핀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아졌다(SWS Media release 99/08/28).

이에 따라 1999년 5월 미국과 필리핀은 ‘방문군 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을 체결하면서 군사적 협력관계의 개선을 모색하였다(Agustin, 2002). 양국의 협력관계는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진압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9·11 테러 이후 아로요(Aroyo)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먼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반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교두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아로요 대통령의 필리핀 내 군사기지 사용 및 유류 재보급 허용 지시는 미국의 요구와 부합하는 것이었다(중앙일보 03/09/25). 그 결과 필리핀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 필리핀을 최우방 국가로 대우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9천 5백만 달러의 군사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대부분의 필리핀 국민들도 테러리스트들과의 전투에 미군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¹²⁾ 이에 따라 “칼라얀-아길라

11) 1995년 싱가포르에 취임한 필리핀 여성이 살인혐의로 싱가포르에서 사형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필리핀 전역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라모스 정부는 남사군도 분쟁 해결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환된 대사를 다시 파견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RIPS 1998: 165).

12) 2001년 11월 실시된 필리핀 여론조사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들과의 전투를 위해 미군의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전체의 84%에 달했다(Mangahas, 2002).

(Kalayaan-Aguila) 2002” 또는 “발리카탄(Balikatan) 02”로 불리는 미·필 연합군사훈련이 아부 사야프를 대상으로 민다나오의 남서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준동하는 테러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필리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최신 장비와 정보수집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훈련을 위한 미군의 필리핀 주둔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적들이 필리핀을 공격하도록 유인할 것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되었다.¹³⁾

2002년 2월 660여 명의 미군 특수부대원이 필리핀에 도착하자 필리핀 진보 진영의 반미 시위가 격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는 필리핀 국민 전체의 뜻이기보다는 극히 일부의 세력만이 참가한 것이었다.¹⁴⁾ 2002년 8월에 필리핀에서 실시된 여론 조사는 필리핀 사회의 전반적인 의견과 달리 이슬람교를 믿는 필리핀인들만이 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⁵⁾

<표 3>에 정리되어 있듯이 필리핀 국민들은 대부분 2002년 미군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체 국민의 50%가 미·필 연합훈련이 필리핀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했고, 63%는 아부 사야

13) 필리핀 노동 사회당의 소니 멘셀시오 의장은 호주에서 발행되는 <주간 녹색좌파>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이 1차적으로 좌파를 겨냥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작전은 훨씬 더 확대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평화시위를 통해 10년 전 미군철수를 쟁취한 필리핀 민중진영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KDLP News 02/03/04).

14) VFA 체결에 대한 주요 반대세력은 가톨릭 성직자, 좌파, 공산주의자, 그리고 이슬람 반군이었다. <http://www.oz.net/~vvawai/sw/sw39/philippines.html>.

15) SWS Survey에 따르면 대부분이 필리핀군에 대한 미군의 지원에 만족했지만, 발리카탄 훈련에 따른 이익의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졌다. 여기서 이슬람계 필리핀인들은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이슬람계의 표본 수가 적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들은 1)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동의하지 않았고, 2) 발리카탄 훈련으로부터 거의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고 평가했으며, 3) 미군은 필리핀의 어떤 지역에도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Sandoval 2003).

프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70%의 국민들이 필리핀 내부의 반군들을 대상으로 미군을 투입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미국의 대이라크전에 대한 지지도 역시 각각 53%와 68%로 높게 나타났다(Sandoval, 2003).

〈표 3〉 발리카탄 훈련과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평가

구 분	발리카탄 훈련으로 필리핀이 얻을 수 있는 이익 (%)			
	매우 큰 도움	큰 도움	적은 도움	전혀 불필요
응 답	15	35	34	15

구 분	아부 사야프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평가 (%)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 답	29	34	20	12	5

구 분	미군이 투입되어야 할 군사작전의 대상				
	Only Abu Sayyaf	Abu Sayyaf, MILF	Abu Sayyaf, NPA	Abu Sayyaf NPA, MILF	NONE
응 답	18	11	6	35	30

출처: Sandoval, Gerardo A. 2003. "SWS September Survey". SWS Media release October 10.

이러한 필리핀 국민들의 의식 변화는 2003년 부시 미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시 반미 시위와 함께 친미 시위도 불리일으켰다.¹⁶⁾ 물론 반미 시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필리핀에서 친미 시위가 나타났다는 것은 필리핀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군 철수가 필리핀에 가져온 안보의 공백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미국 군사지원의 필요성이었다. 경제 개발 및 군 현대화 작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16) 약 50명의 친미 시위대가 부시 대통령의 환영행사에 참여했다(Sun Star Network Online 03/10/18).

필리핀으로서는 명분 유지보다는 실리를 추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된 것이다.

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정책과 한국의 변화

한국의 반미운동은 1980년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유석춘·박병영 2002). 물론 그 배경에는 6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산업화의 성공에 따른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의식 수준의 향상이 자리 잡고 있다(홍성태, 2003). 특히 1979년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해 12·12 사태로 일부 군 장성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군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한국군 병력이 광주의 시위 진압에 투입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정권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나탈러스연구소편, 1989).

그러나 80년대 초반의 반미 운동은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또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사회적 지지보다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홍성태, 2003). 한·미 동맹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1989년 미·소 정상이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면서부터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자국 및 동맹국의 안보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및 첨단 재래식 무기의 제3세계 국가로의 확산을 통제하기 시작했다.¹⁷⁾

17) 1991년 1월 국방연례보고서에서 「신국방전략」으로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탈냉전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위협에 대한 해결이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있다(U.S. D.o.D., 1992).

다른 한편 냉전의 붕괴에 따라 한국은 지금까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구소련 및 중국과 각각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1989년 영변의 핵시설이 촬영되면서 불거진 북한 핵문제와 맞물려 한·미 양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 냈다.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동일한 인식을 공유했던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정책적 갈등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하면서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무역·투자를 증대시켜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반면 김영삼 정부는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 악수할 수 없다”며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같은 해 6월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마저 탈퇴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닫게 되자, 김영삼 정부는 입장을 바꿔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반대를 표명했다.¹⁸⁾

이러한 갈등 관계는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원활한 공조 관계로 전환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경제 제재 완화 및 수교 교섭 등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우선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분단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합의하면서 남북은 이전 시기와 명확히 구분될 정도로 많은 대화와 교류를 진행

18) 김영삼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1994년 핵 위기를 떠올리며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며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30분간 전화로 싸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나는 몇 백만이 죽을지 모르니 전쟁은 안 된다. 우리 군인은 단 한 명도 동원할 수 없다고 까지 했다’고 전했다(박성휴, 2002).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대북 화해무드는 북한의 실제적 위협의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국민들의 대북 인식을 냉전시대의 적대적 관계로부터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국민들의 대북의식 변화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한국인의 대북 인식 추이

문항	조사시기							
	1994		1995		1999		2000.8	
지원 대상	39.2	59.6	11.7	36.9	19.3	51.9	44.0	93.8
협력 대상	20.4		25.2		32.6		49.8	
경쟁 대상	2.5		3.5		3.1		-	
경계 대상	30.7		43.7		28.7		-	
적대 대상	7.1		15.9		8.2		4.6	
무응답	-		-		8.2		-	

출처: 국방부, 2001, p.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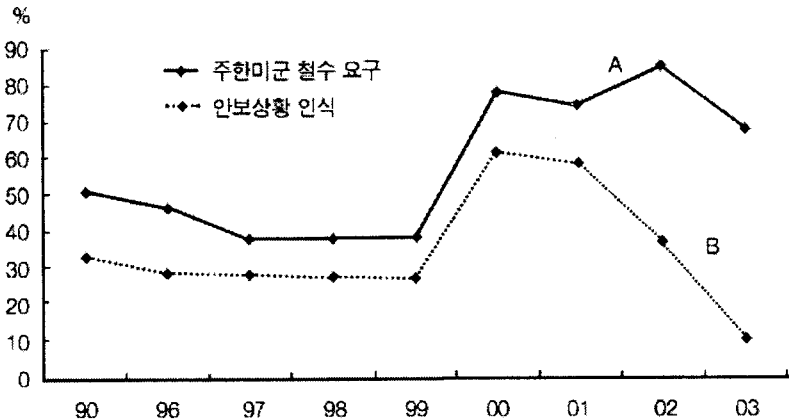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뒤를 이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표방하면서 한·미 공조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보유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 이자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부시는 2000년 말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공개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¹⁹⁾

그 결과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중첩된 한국은 ‘친북·반미’ 또는 ‘반북·친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통합을 준비해 나가

19) 2001년 1월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는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차 방미 중인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뜻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다(동아일보 03/09/17).

는 햇별정책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제동은 한국의 정치적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²⁰⁾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진보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



출처: 국방부, 2001: 이숙중, 2002: 미디어리서치, 1996: 코리아리서치, 2001: 통계청, 1996: 이내영·정한윤, 2003.

- 1) 주한미군 철수요구는 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의 점진적단계적 철수를 지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2) 안보상황 인식은 미군 철수지지 곡선과의 비교를 위해 "70 -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이 있다'는 응답비율"로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숫자가 높을수록 안보상황이 개선된 것을 의미하고 낮을수록 안보상황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4>는 안보상황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냉전의 해체와 그에 따른 대북

20) 2002년 1월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른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한국을 영구 분단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적 책략"이라고 주장하며, 부시 대통령을 '악의 화산'이라고 지칭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비공식적으로 "송 동지의 대정부 질문 내용이 내 생각과 거의 같다. 미국이 새로운 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문제다"라며 격려했다(동아일보 03/09/17).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나란히 움직이고 있던 안보상황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2002년부터 급속히 간격을 넓히기 시작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으로 인식되면서 <그림 4>의 A와 같이 한미동맹 개선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졌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권리 회복으로서의 반미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2002년 6월 훈련 중인 주한미군 장갑차에 두 명의 여중생이 압사 당한 사건은 한국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극대화하여 ‘촛불시위’에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폭발적으로 이끌었다.

반면 반미시위 도중 대형 성조기가 찢겨지는 모습이 미국 TV에 방송되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까지 거론되자,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의 안보위기를 심화시켜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 시인과 핵개발 포기 거부는 북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지원을 지속적으로 승인하여 왔던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림 3>의 B와 같이 국민들로 하여금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를 우려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친미·반북 집회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유포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남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러한 보수단체의 활동을 오히려 제지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²¹⁾ 이로 인해 한국의 친미 시위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

21) 그 결과 경찰이 인공기 훼손을 제지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인공기 훼손에 대하여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V.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친미·반미 운동

이 글에서는 안보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의 상승을 반미 운동의 원인으로, 미국의 군사지원을 통하여 현실적인 안보위협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의 상승을 친미 운동의 원인으로 각각 제시한 후 한국과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친미의 움직임을 냉전과 탈냉전기의 시기별로 비교해보았다.

마키아벨리는 불균등 행위자 간의 동맹에 있어서 강대국이 약소국에 비하여 이점을 갖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소국은 가급적 동맹을 체결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체제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결이 불가피했던 한국과 필리핀 역시 미국에게 동등한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맹 형성의 배경이 된 안보환경의 변화는 이들 양국에게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을 요구하는 집합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냉전시대 미국의 군사 원조는 한국에게 체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따라서 미국과의 평등한 관계 확보에 대한 기대보다는 미국의 안보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한·미 동맹관계는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1960년대 한국의 총 군사비에서 83.4%를 차지하던 미국의 군사원조는 1974년에는 10%로 감소하였다가 1977년에는 거의 중단되었다(유재갑, 2003).

특히 1988년 이후부터는 미군 주둔비용 중 4천만 달러를 분담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미 동맹관계는 일방적인 안보의존 관계에서 점차 연합적인 성격으로 변화해 왔다(이민룡 2003). 한국이 일방적인 대미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고 탈냉전과 함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이에 비례

하여 평등한 관계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도 높아졌다. 개선된 안보 환경과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 사이의 인식의 괴리는 반미시위로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졌다.

이와 달리 필리핀에서는 탈냉전 이후 오히려 안보위협이 증가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하던 미국이 전력을 감축하자, 중국은 남지나해와 이 지역의 도서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뜻하지 않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던 필리핀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친미 정책은 내부적으로는 이슬람계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했지만, 다른 한편 필리핀의 국가이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표 5>는 1999년 필리핀이 미국과 방문군 협정을 체결한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필리핀의 태도 변화는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에서 앞으로 한국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 있는 교훈을 제시해준다. 탈냉전과 반란세력의 약화로 더 이상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필리핀 국민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외부 위협에 대한 대비보다는 국가적 위신을 손상시키는 미군기지의 철수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다.²²⁾ 실제로 1988년 필리핀 공산당(CPP, 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과 신인민군(NPA, New People's Army) 주요 간부가 체포되면서 공산반군 세력은 급격히 약화 되었다. NPA는 화기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고,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것은 전체 인원의 약 1/3에 불과했다(RIPS 1991: 178). 이에 따라 1989년 필리핀 외무장관 라울

22) 클라크(Clark) 기지 주변의 엔젤레스(Angeles)시와 수빅(Subic) 기지 주변의 오롱가포(Olongapo)시에 밀집한 술집, 매춘부, 범죄집단들은 필리핀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켰다. <http://countrystudies.us/philippines/92.htm>.

〈표 5〉 미국의 대한(對韓) 및 대필리핀 군사원조 (1990-2001)

(단위 : 천 달러)

구분	한국				필리핀			
	IMET	FMF	MAP	합계	IMET	FMF	MAP	합계
1990	1,196	0	0	1,196	2,445	140,395	0	142,840
1991	983	0	0	983	2,671	185,543	2,094	190,308
1992	776	0	0	776	2,475	25,000	7,752	35,227
1993	273	0	0	273	2,539	15,000	1,895	19,434
1994	21	0	0	21	876	0	0	876
1995	10	0	0	10	1,193	0	0	1,193
1996	9	0	0	9	1,210	0	0	1,210
1997	0	0	0	0	1,295	0	0	1,295
1998	0	0	0	0	1,278	0	0	1,278
1999	0	0	0	0	1,348	1,000	0	2,348
2000	0	0	0	0	1,415	1,437	0	2,852
2001	0	0	0	0	1,436	2,342	0	3,778
합계	3,268	0	0	3,268	20,181	370,717	11,741	402,639

출처: U.S. Security Assistance Database, "U.S. Military Aid Appropriations for Philippines for 1990-2003", <http://www.fas.org>.

1) IMET(International Military Training and Education): 국제군사교육 및 훈련(미국의 우방국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교육으로 미국 내 군사교육 기관에서 수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우방국이 원할 경우 미군 교육진이 현지에서 군사교육 제공).

2) 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해외군사차관 (미국의 우방이 미국의 무기, 방위물자, 방위용역, 방위훈련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미국 정부가 이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유무상 원조와 차관으로 현금 지원은 없고 대신 FMS(Foreign Military Sales) 혹은 DCS(Direct Commercial Sales)의 비용을 대납하는 지원).

3) 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군사원조계획(법률에 의하여 제공되는 무상군사원조).

망라퍼스(Raul Manglapus)는 미군은 필리핀 정부가 직면한 주된 위협인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제압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으며, 필리핀 미군 기지는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RIPS 1990: 96). 그러나 미군기지의 철수와 함께 현실화된 중국의 위협은 이러한 필리핀인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필리핀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하다. 북핵 위기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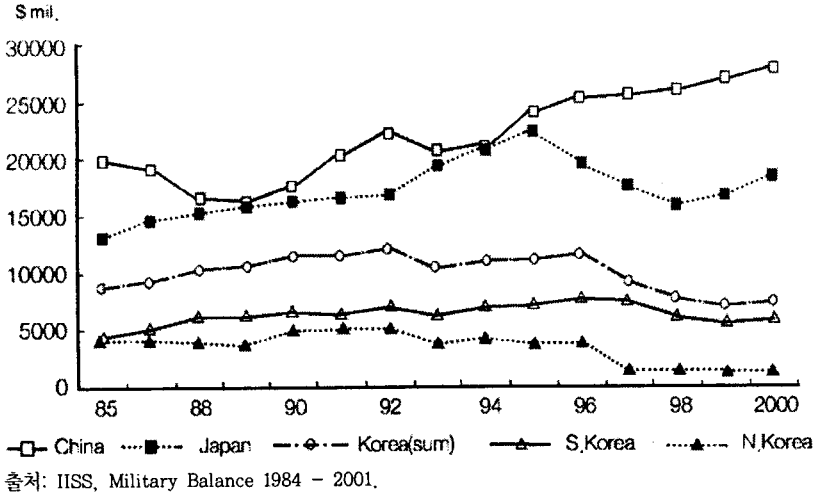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²³⁾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²⁴⁾ 안보상황과 미국의 안보 지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미국(39%)이 북한(33%)보다 한국의 안보에 더 위협이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조선일보 04/01/12, 29면). 이는 이전의 반미의 운동과 확연히 구분되는 2002년 ‘반미 촛불시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반북·친미’와 ‘반미·친북’ 중 후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안보 위협은 북한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고대사 왜곡,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과 관련된 분쟁의 씨앗들이 동북아 지역에 잠재되어 있다. 한국이 아무리 군사비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주변 강대국들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림 5>에서와 같이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일본이나 중국의 1/4에 불과하며, 남북한의 군사비를 합해도 일본과 중국의 군사비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동남아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또는 일본이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역량은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3) 홍콩의 시사주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워들린 월드 와이드」가 공동으로 한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10개국 주요 기업의 대표 및 고위 임원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한국(68.7%), 싱가포르(82.8%), 필리핀(80%), 일본(78%), 호주(76.3%), 홍콩(73.6%)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TMD 체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은 한국이 53.3%로 10개국 중 9번째에 불과했다(조선일보 99/03/22).

24) ‘주한 미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연상(聯想)이 58.3%나 됐다. 부정적인 연상 중 ‘미군범죄’를 떠올린다는 응답이 28.8%였으며, 그 다음이 ‘환경오염’(11.5%), ‘결핵균’(10.6%), ‘가치관’ 순이었다(내일신문 00/08/16).

〈그림 5〉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 비교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001년 11월 “미국의 목표에 따라 동맹이 결정되지, 동맹에 따라 미국의 목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듯이 앞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동력은 미국의 국가이익이다. 필리핀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이 가능했던 것도 필리핀이 태평양에서의 작전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필리핀은 이를 활용하여 반미로 초래된 안보위협을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이에 따른 군사원조 확보 등의 용미(用美)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 지원은 중단되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 <표 6>과 <그림 6>이 보여 주고 있듯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판매 규모는 최근 10억 불 규모로 늘어났으며, 향후 첨단 장비의 도입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윤현득, 2002).

〈표 6〉 미국의 대한(對韓) 및 대필리핀 군사 판매 (1990-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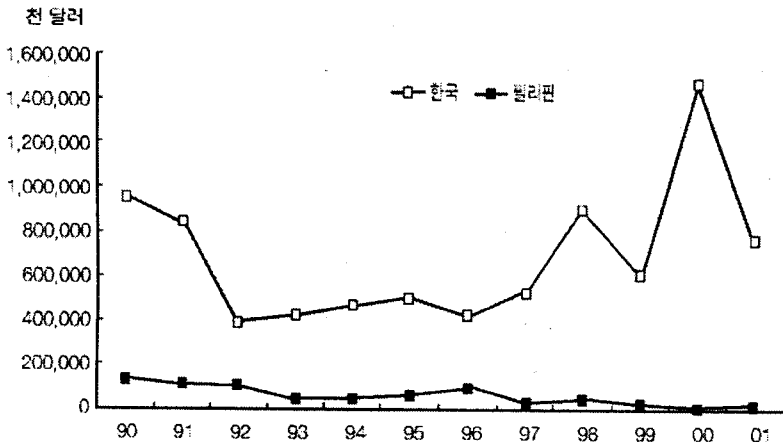
(단위 : 천 달러)

구분	한국			필리핀		
	DCS	FMS	합계	DCS	FMS	합계
1990	294,123	655,078	949,201	12,068	122,916	134,984
1991	612,714	226,812	839,526	1,325	108,240	109,565
1992	82,441	308,932	391,373	1,915	98,257	100,172
1993	121,794	302,845	424,639	723	39,710	40,433
1994	88,724	379,432	468,156	1,329	45,129	46,458
1995	61,574	441,666	503,240	1,706	57,881	59,587
1996	85,356	339,844	425,200	2,308	88,765	91,073
1997	47,079	478,029	525,108	559	28,492	29,051
1998	60,105	836,461	896,566	1,583	40,056	41,639
1999	10,711	590,183	600,894	815	19,492	20,307
2000	10,946	1,456,763	1,467,709	867	9,913	10,780
2001	15,476	750,006	765,482	53	20,124	20,177
합계	1,491,043	6,766,051	8,257,094	25,251	678,975	704,226

출처: U.S. Security Assistance Database, <http://www.fas.org>.

- 1) DCS(Direct Commercial Sales): 직접상업판매(미국의 민간 기업과 외국 정부 간의 거래).
- 2) FMS(Foreign Military Sales): 해외군사판매(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대외군사 원조의 일부분으로 1968년 10월 22일 제정된 미공법 90-629에 근거하여 방위물자와 훈련을 포함한 근무 등을 지정판매 하거나 총괄판매 혹은 보급지원 하는 형식이 있음).

〈그림 6〉 미국의 대한국 및 대필리핀 군사 판매 (1990-2001)



출처: U.S. Security Assistance Database, <http://www.fas.org>.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 또한 북한의 남침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다(김용호, 2003). 이는 체제 생존이라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현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미보다는 필리핀과 같은 용미(用美)가 중요하다.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무조건적인 반미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VI. 결론

이 글은 한편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대미관계가 기본적으로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동맹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글은 다른 한편으로 1989년을 전후해 발생한 냉전의 해체가 한국과 필리핀의 안보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를 중심으로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와 불평등을 강요하는 안보환경과의 상대적 간격에 따라 불평등한 동맹관계를 개선하려는 집합행동, 즉 반미운동이 등장할 수도 있고, 또한 거꾸로 방위력 강화를 위한 집합행동, 즉 친미운동이 등장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군에 대한 두 나라의 반응은 상대에 대해 어떠한 그렇게도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신기할 정도로 엇갈리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한국이 친미 그리고 필리핀이 반미를 한 반면, 탈냉전 시대에는 한국이 반미 그리고 필리핀이 친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변화의 배후에는 자국의 안전보장이라는 힘겨운 짐을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가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려운 선택이 도사리고 있다.

정서적인 차원에서 동맹관계의 대등성에 무게를 둔다면 우리는 상당한 기간 반미라는 집합행동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실용적인 차원에서 안전보장에 무게를 둔다면 반미보다는 친미 혹은 용미(用美)를 통해 실리를 확보하는 방식이 분명 보다 나은 선택이다. 비록 냉전이 해체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 시도되고 있는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이고 또한 해묵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북한이 개발하는 핵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가.

**주제어 : 안보환경, 한미동맹, 주한미군, 군사기지협정, 방문군 협정,
아부 사야프**

참고문헌

- 국방부. 1995.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전략』.
- _____. 2001. “국방운영의 현실과 대책” 국방비 관련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
- 권오신. 1992. “미국·필리핀 간의 군사기지 협정 개정문제” 『강원사학』 8(1).
- _____. 1993. “미국·필리핀 전쟁에 관하여” 『강원사학』 9(1)
- 권태영·정춘일. 1998. 『선진국방의 지평』 서울: 을지서적.
- 김순현. 1991. 『최신군사용어 영한사전』 서울: 한원.

- 김영정. 1988.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서울: 현암사.
- 김영희. 2003. “‘新제국’ 미국은 어디로 3. 다시 그리는 동맹 지도” 『중앙일보』 9월25일.
- 김용호. 2003. “우리 국민 안보의식 수준은?” 『국방저널』 10월호
- 남봉우. 2000. “전국민여론조사, 미국 이익 위해 주둔한다 46%.” 『내일신문』 8월16일.
- 미디어리서치. 1996. 최근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공보처 발주).
- 박건영. 2002.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과 한·미 관계의 재조명”, 세종연구소편 『국제질서 전환기의 국가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 박사명. 1993. “전환시대의 사회혁명: 필리핀 혁명운동의 위기와 행방” 『동남아시아연구』 (2).
- 박성휴. 2002. “‘핵풍’에 한반도 평화 흔들흔들” 『뉴스메이커』 (504).
- 박승우. 2003. “필리핀의 발전전략과 국가와 사회간 관계의 재평가” 『동남아시아연구』 13(2).
- 박영호. 1988. 『한국의 대미통일외교전략』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비핵태평양 건설을 위한 나탈러스 연구소편. 1989. 『미군기지의 전략과 구조를 파헤친 태평양 사령부』 서울: 샘물.
- 서경교. 1994. “필리핀 군부의 정치적 역할” 『민족과 문화』 2(1).
- 송영선. 1987. “미국의 서태평양 기지정책: 필리핀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27(1).
- 연합. 1999. “여론조사, 북미사일 위협 느끼는 한국인 싱가포르-필리핀-일본보다도 적어”. 『조선일보』 3월 22일.
- _____. 2004. “제주도민 73% '민족 평화축전 계속돼야'” 『조선일보』 1월 12일.
- 유석춘·박병영. 2002. “한국 학생운동의 구조와 기능” 유석춘 편,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서울: 전통과현대.

- 유석춘. 2002a. “한국과 필리핀의 미군.” 『조선일보』 8월 5일.
- _____. 2002b. “되는 일 안 되는 일 없는 나라들.” 『조선일보』 8월 29일.
- 유성식. 2003. “독일인, 부시가 후세인 보다 더 위험.” 『KBS Internet News』 2월 15일.
- 유재갑. 2003.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백종천 편 『한·미 동맹 50년』 성남: 세종연구소.
- 육군사관학교. 1994. 『한국전쟁사』 서울: 일신사.
- 윤재섭. 2002. “필리핀 재주둔 음모, 반미시위 격렬.” 『kdipnews』 (77).
<http://www.kdipnews.org>.
- 윤현득. 2002. “안보현실과 주한미군” 『국방저널』 11월호.
- 이내영·정한운. 2003.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국가전략』 9(3).
- 이명철·김창수. 2002. 『미국의 필리핀 재주둔 추진 동향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이민룡. 2003. “한미동맹의 이론과 현실”, 우암평화연구원 편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사와 이론』 서울: 화평사.
- 이숙중. 2002.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대북·안보 여론의 변화” 『정세와 정책』 2002년 12월호.
- 이영성. 2003. “「비화 국민의 정부」 4부 ②한·미의 엇박자.” 『동아일보』 9월 17일.
- 이주천. 1990. “미국제국주의와 필리핀의 독립전쟁” 『원대논문집』 24(1).
- 이학수. 2001. “대북정책의 일관성 요인분석” 『한국행정논집』 13(2).
- 정성장. 2003. “대북정책”, 세종연구소편, 『새정부의 대외정책』 성남: 세종연구소.
- 정영국. 1998. “필리핀의 민주화와 좌파혁명세력의 쇠퇴” 『동남아시아연구』 (6).
- , 2003. 『필리핀의 정치변동과 정치과정』 서울: 백산서당.
- 조정남. 1979. “필리핀에서의 공산세력과 회교세력” 『평화연구』 5(1).

-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1997. 『군사악어집』 서울: 주한미8군사령부.
- 최정순. 2003. “미국의 필리핀 지배전략과 통치기구” 한국동남아학회 가을 학술회의 발표문.
- 코리아리서치. 2001.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통일부 발주).
- 통계청. 1996. 정부여론조사 자료집(국가보훈처).
-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1999. “필리핀 내전”.
- 홍성태. 2003. 『반미가 왜 문제인가』 서울: 당대.
- Acosta, Carmencita. 2003. “Tensions Mount as US President Bush’s Visit Nears” *What’s On and Expat: the Philippine Guide*. October 12-18.
- AFP. 2003. “Clash of protests hours before Bush visit to RP”. *Sun Star Network Online*. October 18.
[http://www.sunstar.com.ph/static/net/2003/10/18/clash.of.protests.hours.before.bush.visit.to.rp.\(11.30.a.m.\).html](http://www.sunstar.com.ph/static/net/2003/10/18/clash.of.protests.hours.before.bush.visit.to.rp.(11.30.a.m.).html).
- 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gustin, Commo Calos L. 2002. “Military Exercise in the Context of Philippine Security Requirements”, Quezon City: *The Third World in the Global World*. 25 Years of Third World Studies Center(February 7).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97. “The Role of Foreign Aid in Development: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CBO Memorandum*(September).
- Coronel, Sheila (ed). 1998. *Pork and Other Perks: Corruption & Governance in the Philippines*. Philippines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David, Randy.
2003. “The Bush Visit” *The Philippines Daily Inquirer*. October 19.
- Ferrer, Miriam. 1992. “The Dynamics of the Opposition to the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Kasarinlan*. 7(4).

- Gueshwender, James A. 1968. "Explorations in the Theory of Social Movements and Revolutions", *Social Forces* 45.
- Gutierrez, Eric, Ildefonso Torrente, and Noli Narca. 1992. *All in the Family: A Study of Elites and Power Relations in the Philippines*.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 Gurr, Ted R.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leto, Reynaldo Clemena. 1979. *Pasyon and Revolution: Popular Movements in the Philippines, 1840-1910*.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McCoy, Alfred W(ed). 1994. *An Anarchy of Families*,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Mangahas, Mahar. 2002. "U.S MILITARY ASSISTANCE" DIFFERENT FROM "U.S. TROOPS", *Social Weather Stations media release*. 30 January 2002, <http://www.sws.org.ph>.
- Moon Katherin H.S. 2002. "Korean Democracy, Civil Society Activism, and Anti-Americanism" *Korean Studies Forum* 1.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Ramage, Douglas E. 2002. "Anti-Americanism in Indonesia After September 11?" Seoul: Yonsei University 학술회의 발표문(3월 7일).
-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1986. *Asian Security* 1986. Tokyo: Brassey's Defence Publishers.
- _____. 1990. *Asian Security* 1988-1989. Tokyo: Brassey's Defence Publishers.
- _____. 1991. *Asian Security* 1989-1990. Tokyo: Brassey's Defence Publishers.
- _____. 1996. *Asian Security* 1994-1995. Tokyo: Brassey's Defence Publishers.
- _____. 1997. *Asian Security* 1995-1996. Tokyo: Brassey's Defence Publishers.
- _____. 1998. *Asian Security* 1996-1997. Tokyo: Brassey's Defence Publishers.
- Sandoval, Gerardo A. 2003. "SWS September 2003 Survey: 53% Trust George W. Bush; 68% Approve U.S. Presence In Iraq; 86% Say U.S. Has Not Found

WMDs In Iraq.” *Social Weather Stations media release*. October 20.
<http://www.sws.org.ph>.

Social Weather Station. 1999. “Majority agree with VFA, expect u.s. military help in case of spratly conflict.” *Social Weather Stations media release*. August 18.
<http://www.sws.org.ph>.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86. *Military Balance* 1984-198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87. *Military Balance* 1985-198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88. *Military Balance* 1986-198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89. *Military Balance* 1987-1988.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0. *Military Balance* 1988-198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1. *Military Balance* 1989-199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2. *Military Balance* 1990-199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3. *Military Balance* 1991-1992.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4. *Military Balance* 1992-1993.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5. *Military Balance* 1993-1994.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6. *Military Balance* 1994-199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7. *Military Balance* 1995-199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8. *Military Balance* 1996-199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9. *Military Balance* 1997-1998.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0. *Military Balance* 1998-199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1. *Military Balance* 1999-200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Timberman, David G. *A Changeless Lan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1.

U.S. DoD., 1992. *Annual Reports of Secretary of Defense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1992.

U.S. Security Assistance Database. "U.S. Military Aid Appropriations for Philippines for 1990-2003." <http://www.fas.org>.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Anti- and Pro- U.S. Movement: Korea and Philippines

Lew, Seok-Choon / Kim, In Soo

(Yonsei University / Korea Military Academ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nti- and pro- U.S. movement in Korea and Philippines by comparing the indispensability of military alliance and the desire to retrieve inequality of alliance in cold war and post cold war era. As a newly independent state, Korea and Philippine didn't have sufficient military strength to cope with threats from communist states. They had to make alliance with United States to protect themselves. The U.S. forces in Korea and Philippines have contributed to stabilize conflicts in the South East and North East Asia. This military dependency on United States also has produced inequality problems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The extent of Korea's military dependency on United States in the cold war era was so great that Korea government was incapable of managing North Korean threats without military assistance from United States. It made Korean people oppos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rather than request United States to alleviate inequality problems. However, the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summit meeting changed the hostile attitude of South Korean people toward North Korea. The lower became wide spread fear for North Korea invasion, the higher

expectation to establish equal relations with United States. The recognition gap between improved security environment after cold war and increased expectation of equal relations brought about Anti-U.S. movement in Korea.

The Philippines' military dependency on United States became higher after withdrawal of U.S. military bases in Philippines. Because main military threat were insurgence of NPA and MNLF fighters, Philippine people didn't think that U.S. military bases contributed to increase their national interest. It led them to participate in a movement requesting withdraw of U.S. military base. However, it enabled China to increase its influence in Spratllys. The higher became fear for conflict with China over Spratllys, the higher trust and military dependency on United States. The recognition gap between its own defense capability and increasing threat from China brought about pro-U.S. movement requesting to strengthen military cooperation with United States in Philippines.

Key words: security environment, inequality of military alliance, anti- and pro- U.S. movement, military dependency, cold war, NPA, MNLF, Spratllys.